

소설에 나타난 안방의 의미와 용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Bang' It's Meaning and Practical Use Mentioned in Novel

오혜경^① / Oh, Hye-Kyung
 서귀숙^{②③④} / Suh, Kue-Sook
 최경실^{⑤⑥⑦⑧} / Choi, Kyoung-Sil

김대년^⑨ / Kim, Dae-Nyun
 신화경^{⑩⑪⑫} / Shin, Hwa-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aning and practical use of 'Anbang' of which unique roles and function has not been changed till now since Chosun dynasty. The Study has been carried out by selecting 27 novels in which the word 'Anbang' mentioned frequently and analyzing the sentences with 'Anbang'. The major finding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Since Chosun dynasty till now, 'Anbang' in most important space for Korean in residential area and its meaning and practical use had not been changed.

2. The meaning of Anbang could be categorized into two parts: One was general symbolic meaning which was perceived mentally in general and the other was specific symbolic meaning which was varied by uses. In case of general symbolic meaning 'Anbang' implied a space with light turned on late at night, a very special space from the point of interior decoration and size, a space to keep very important stuffs and a space to deal with very important business. In case of specific symbolic meaning during Chosun dynasty, 'Anbang' was used as a pronoun to imply a mistress as major occupant was a mistress. Since then, gradually, 'Anbang' was used as a pronoun to imply married couple as married couple becomes major occupant.

3. The practical use of 'Anbang' could be categorized into two: One was routine usage and the other was exceptional usage. The typical routine use were sleeping, dining family gathering, visitor greeting, clothes changing and sewing. The exceptional use were a Sebae(new year's bow), Pyeback(make a deep bow and offer her gifts to her parents-in-law) and patient curing.

키워드 : 소설, 안방의 의미, 안방의 용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를 닦고 살기 시작한 고대로부터 오랜 세월 자생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된 우리의 독특한 문화이다. 그 중에서도 주택내의 실내공간은 인간 삶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시대의 가치관이 변화하거나 외래의 문화가 밀려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그 결과 현재의 실내공간 구조와 형태가 완성되었다.

주택 및 실내공간이 변화된 모습은 그 근원을 현존 유구가 있는 조선중기, 유교적 가치관이 확립된 후 나타난 주택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대체적으로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으나 일제강권 이후 일본의 영향을, 그리고 6.25 동란 후 미국 및 서양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숨가쁘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실내공간에서도 방은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다용도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던 유교적 공간에서부터 확실한 용도가 부여되는 서양의 공간까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또는 그 의미가 바뀌는 등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건축학 분야와 가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건축학 분야에서는 주로 조선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주남철,

①정회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부교수
 ②정회원,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교수
 ③정회원, 숭실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전임강사
 ④정회원,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⑤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전공 조교수

1) 홍영우,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2.

1990; 문흥길, 1982; 조용훈, 1984; 감선재, 1987)들이 주를 이루었고 가정학 분야에서는 가족관계 내지는 주생활의 변화와 공간 사용의 상관관계를 거주인과의 면접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연구(홍형욱, 1986; 박선희, 1991; 유영희, 1994) 등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하나의 공간을 주체로 보고 이에 관한 의미나 용도를 집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만 최근에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대한 연구에서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보면 주택의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방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사랑방, 대청, 행랑방 등은 1950년대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1980년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²⁾ 대신 현관, 욕실, 거실, 침실 등 서양풍의 근대적인 주생활을 반영한 용어들이 출현하고 있다³⁾. 그러나 안방은 조선중기는 물론이고 서구적 주거양식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관여하지 않고 출현하고 있어 한국인에게 안방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2),3)}의 후속연구로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명칭을 지니고 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방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계획되었으며 아울러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방의 용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공간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방법은 대상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을 면접하고 이를 분석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소설에 표현된 공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소설의 내용에서 상당부분이 「장소, 공간」을 표현하고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견해에서였다. 즉 소설 속에는 구체적인 실내공간의 명칭과 더불어 그 공간의 사용자와 용도 그리고 그 공간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작가는 개인의 의식에 각인된 공간 개념의 표출이며 작가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므로써 그 시대의 실재 공간에서 보여지는 공간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작가는 그 시대와 그 문화를 언어로 표현하는 대표자이므로 공간이 갖는 원래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⁴⁾. 따라서 문학과 독자는 실내공간에 대한 공간적 공통감각을 공유하게 되며 여기에서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2) 신화경 외 4인, 한국 주거공간 용어변화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 주거학회지 9권 2호, pp.97-104.

3) 서귀숙 외 4인,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5권, pp.49-61.

4) 서귀숙 외 4인, 상계서, pp.40-61.

2.1. 소설의 선정 및 관련문장의 추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소설은 총 62개로 <표 1> 이들 소설은 우선 국문학자의 자문(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외곤 교수,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김현주 교수)을 통해 공간에 관한 단어와 실내용어가 가능한 많이 포함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소설의 배경연도와 출판연도별로 구분하여 나누어 보았다. 시대별 구분은 우선 1900년 이전과 1900년 이후로 나누고 1900년 이후는 본격적인 개량한옥의 보급시기인 193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1900~1930 그리고 1930~1950년으로 구분하였고 1950년 이후는 서양문물이 들어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였다는 견해에 따라 1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⁵⁾ 그 결과 각 시대에 해당되는 소설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추가로 소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편, 소설의 길이, 즉 대하, 장편, 중편, 단편의 선정에도 될수 있으면 고르게 분포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소설을 읽어가면서 하나의 소설마다 안방에 관한 용어(안방, 큰방⁶⁾)를 추출하고 이를 묘사하고 있는 앞뒤의 문장을 함께 추출하여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안방(큰방)은 27개의 소설에서 언급되고 있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 2>과 같다.

<표 1> 조사한 소설의 배경시대와 제목

배경시대	문학작품의 제목
1900년 이전	춘향가, 흥부전, 임궫성
1900~1930년 이전	대하, 귀의 성, 삼대(상·하), 무정, 화수분, 고향, 흙, 배따라기, 행랑자식, 흥가, 토지
1930~1950년 이전	허물어진 환상, 토지, 창랑정기, 경영, 인간사, 맥, 소, 감자, 벌을 헨다
1950~1960년 이전	애미, 비오는 날, 월훈, 장마, 관춘수필, 난리 그 뒤, 남풍, 미망, 고무신, 머루, 수련, 은넛골 이야기, 메아리, 화산덕이, 오지에서 온 편지, 어린 상록수, 태양의 유산, 언덕을 형하여, 장씨일가, 흰 종이 수염, 남한산성, 노을, 전황단인보기
1960~1970년 이전	노을, 젊은 느티나무, 투기, 이브의 변신, 녹지대와 분홍의 애드벌룬, 아홉켠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여도, 흑산도, 꺼씨면 리
1970~1980년 이전	노을, 젊은 느티나무, 장식조내 사람들, 우묵베미의 사랑, 압구정 동엔 비상구가 없다, 지상의 방 한칸
1980년 이후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떠 있는 망루, 목마른 계절, 모든 벽은 문이다, 외딴 방, 그림자외출

2.2. 추출된 내용의 분석방법

정리한 용어 및 관련문장은 독해를 통해 분석하였다. 소설을 독해하는 데는 첫째, 소설에 언급된 단어 수준에서 해석하는 법, 둘째, 문장의 단락수준에서 해석하는 법, 셋째 작품수준에서 해석하는 법을 들 수 있다⁷⁾. 본 연구에서는 안방의 의미와 용도를 알아보고자 하므로 주로 문장의 단락수준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선정하였다.

소설은 몇 개의 문장이 하나의 이야기 전체를 위해 상호 연결되고 정리되어 집합된 문장상태를 이루며 문장에는 공간이 표현되고 그 공간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공간이 갖는 이미지가 된다. 따라

5) 신화경 외 4인, 상계서, pp.97-104.

6) 남도지방에서는 중부지방에서의 안방을 큰방이라 부른다;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p.551.

7) 서귀숙 외 4인, 상계서, pp.40-61.

<표 2> 안방(큰방)관련 문장이 추출된 소설의 분류

작품명	시대구분	1900 이전	1900- 1930	1930- 1950	1950- 1960	1960- 1970	1970- 1980	1980 이후
1 임궽정		●	♣					
2 대하			●	♣				
3 귀의 성			●	♣				
4 삼대(상,하)			●	♣				
5 흥			●	♣				
6 행랑자식			●	♣				
7 흥가			♣	●				
8 토지						●	★	●
9 허물어진 환상				♣				
10 창랑정기				●	♣			
11 경영				●	♣			
12 인간사				♣		●		
13 애미								●
14 비오는 날				●	♣			
15 월훈				●	♣			
16 장마					♣		●	
17 관촌수필							♣	
18 남풍					♣	●		
19 노을					♣		●	
20 젊은 느티나무						●	♣	
21 투기						●	♣	
22 아홉걸레의 구 두로 남은사내						♣	●	
23 지상의 방한칸								●
24 압구정동엔 비 상구가 없다								●
25 떠있는 망루								●
26 모든 벽은 문이다								●
27 그림자 외출								●

분류범주: 출판년도 ● 배경년도 대하★ 장편♣ 중편♥ 단편▲ 출판년도 불분명◊

서 안방에 관한 용어가 있는 전체문장을 읽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파악한 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추출하여 공통된 내용으로 분류한 후 정리하였다.

2.3. 연구의 제한점

조선시대 주택은 그 규모나 사용자들에서 계층별 차이가 확연히 있었고 그 후 현대까지 주택이 변화되어 오면서 다시 시대별로 그리고 조선시대와 같은 계층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계층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소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안방의 의미와 용도에 있어 각 시대별로 그리고 또한 계층별로 일일이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한 구분하여 보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불문하고 해석하였음을 밝혀 둔다.

3. 안방의 의미

조선조 중기 이후 나타난 한국 전통주택에서 안방은 여자들이 시

집을 가서 머리로 시작하여 모친이나 조모의 위치가 되면 사용하는 공간으로 대부분 바닥 온돌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나 방의 위치 및 기능이 명확하였다⁸⁾. 즉 채로 분화된 상류주택에서의 안방은 주택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채보다는 칸으로 분화된 서민주택에서의 안방은 방이 두 개일 경우에서도 부엌이 달린 방이 안방일 정도로 그 위치가 확고하였으며 이는 모두 안주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목적 사용이 이루어졌다. 그후 일제와 6.25를 거쳐 현대에까지 오면서 물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한국인에게 있어 안방은 단순히 주택내에 존재하는 여러 방 중의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선 위치로 그 역할은 모태적 기능을 가진 가족의 구심점이자 핵이라는 상징을 지니고 있다. 소설에 나타난 안방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사용자에 따른 의미로 나누어볼 수 있다.

3.1. 상징적 의미

안방(큰방)은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중요한 재물이 보관되어 있고 장롱 등으로 잘 장식되어 있으며 가장도 몸이 불편하면 사랑방이 아닌 안방에서 쉬고 특히 임종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일단 안방으로 옮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안방은 서양에서 말하는 거실보다 훨씬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 그 비중은 대단한 것이다⁹⁾.

조선중기이후 정착된 이러한 안방의 상징적 의미는 일제와 6.25를 거쳐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안방에 이부자리 대신 침대가 등장하거나 (안방에는 안식침대가 있는게 그 옆에는 못지러진 옛날 삼중장을 신주 보시듯 갖다 놓은 꼴이 갓쓰고 자전거 타는 격이 시예 : 노을, p.46) 안방이 침실과 의상실로 나뉘어지는 변화 (그녀는 침대아래에 놓인 이태리산 털실내화를 신고 엄마가 있는 안방으로 갔다. 침실과 엄마 아빠의 의상실이 따로 분리돼 있는 방이었다 :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p.115)가 생긴 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주택의 공간명칭 중 사랑방이나 대청이 현대에는 사라진 용어임에 비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소설 속에 나타난 안방(큰방)의 빈도 수를 시대별로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시대별 안방의 빈도수

		1900 이전	1901-1930	1931-1950	1951-1960	1961-1970	1971-1980	1980 이후
안방 관련 용어	안방	189	120	39	21	7	3	16
	큰방	13	11	4	31	1		

이와 같이 안방은 1980년 이후에도 계속 쓰이고 있는 용어이나

8)박선희,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9)홍형욱, 한국전통주거생활연구 I,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11집, 1982, pp.60-61.

큰방은 1960년 이후 그 사용이 중단된 용어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큰방은 안방이라는 용어에 흡수되었고 안방은 주택공간에서 가장 큰방이라는 상징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설 속에 나타난 안방의 상징적 의미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들여보면 우선 주택 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을 켜 놓은 곳, 즉 주택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부각되는 문장들이 있다. 「사랑방도 캄캄하고 행랑방도 캄캄하고 오직 안방에만 불이 있는데…(임격정 7권, p.212)」, 「은 집안이 캄캄하고 안방에만 희미한 불이 비치었다(임격정 8권, p.112)」, 「봉당의 화톳불은 거의 다 꺼져가고 건넌방은 캄캄하고 안방에만 등잔불이 켜어 있는데…(임격정 5권 p.282)」 등으로 총 6번 나오는데 모두 임격정에 언급된 내용이다.

또한 가정생활의 중심이라는 상징으로는 「안방에는 문채 좋은 괴목장과 장식 튼튼한 반닫이가 걸자리 잡아 놓였는데…(임격정 1권, p.157)」, 「어머니는 다른 무엇보다도 큰방을 꾸미는 일부터 시작했다(에미, p.629)」, 「안방은 침실과 의상실로 나뉘어있고 넓직한 방만도 여럿 있었다(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p.11)」 등에서는 통시대적으로 그리고 계층에 관계없이 안방의 장식 또는 꾸밈이나 규모가 주택내의 다른 공간과 다르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한편 「장교들과 집꾼, 말꾼들은 행인들과 같이 바깥방에 들고 말들은 따로 마바리 집에 갔다 매고 봉물짐과 행구는 모두 안방 안에 들여쌓고…(임격정 6권, p.54)」, 「겨우 고방문들이 닫혀지고, 쇠통이 채워지고 열쇠꾸러미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리하여 하루 일이 끝난 것이다(토지 1부 1권, p.25)」 등과 같이 중요한 물건이나 재물은 계층에 관계없이 안방에서 관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은 안방에서 처리하거나 또는 당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내용도 있다. 「일가 몰살을 각오한 윤씨 부인은 안방에 앉은 채 사태를 기다리고 있었다(토지 1부 1권, p.364)」, 「기필코 판갈이는 우리 집안에서, 그것도 다름아닌 안채의 큰방에서 직접 내 눈에 발견되어야만 옳았다(에미, p.64)」 등에서는 안방의 정신적 위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에서도 안방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정신적으로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은 조선중기부터 현대에까지 그리고 계층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생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집안에서 마지막까지 불을 켜 놓은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안방은 「임격정」에만 언급되고 있었는데 안방의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 작가에 따라 독특한 자신만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었다.

3.2. 사용자에 따른 의미

안방은 사용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지워진 공간으로 시대에 따라 그 표현되는 의미가 변화하였다. 조선시대의 안방(큰방)은 직계 존속이외의 남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여주인만의 공간이었다. 소설에 나타난 이의 상징은 안방이 곧 여주인의 대명사일 정

도로 동일시 하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안방에서는 여전히 쓸어 맡기고 모른척하니? (삼대-상권, p.43)」라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대는 1900-1930년대의 배경소설이긴 하나 이 때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남자의 공간인 사랑방이 차츰 없어지는 주택 구조로 인해 안방에는 웃어른 내외가 함께 거거하는 것이 상식이 되므로서 안방은 곧 부부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같은 시대의 배경 소설이라해도 「나도 웬만하면 거기서 소리쳐 울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아이 앞에서 눈물짓는 것이 더구나 비참한 것 같고 또 안방 주인네들이 부끄러웠던 탓으로 앞단 마루턱을 넘어 커다란 소나무 밑에를 찾았었다(홍가, P.161)」, 「다투는 바깥 기척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참고 있던 안방 두 늙은이가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왔다(토지 4부 12권, p.29)」의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가 여주인에서 부부로 옮겨감에 따라 공간과 사용자를 동일시하는 의미는 훨씬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방=주인네, 안방=두늙은이가 되므로서 사용자가 확실히 규정지워진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1930년 이후의 배경 소설에서는 젊은 내외의 공간보다는 어른을 대우하여 모시는 공간으로서 안방의 예가 자주 나타났다. 이종우¹⁰⁾는 60년대 까지는 안방이 노인을 모시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고 하였는데 「안방은 옛단지를 비롯한 온갖 근엄거리들이 들어찬 벽장을 뒤로하고 정좌한 할아버지의 은둔처였다(관촌수필, p.314)」,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부탁했다(장마, p.233)」와 같이 50-60년대 배경소설에서 어른을 잘 모시는 공간의 상징으로서 안방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문을 열까 안았고 오경배가 팔을 풀며 건넌방으로 들어가라고 한즉 오경배의 아내는 자기가 건넌방으로 자리를 옮길테니 뜨뜻한 안방에서 오랫동안 그리던 회포를 풀라고 했다(인간사, p.119)」, 「안방을 내어 주었고 안방에 있던 그 남정네로 보이는 사내(토지 3부 7권, p.237)」을 30~50년대 배경소설에서 보이는, 손님을 극진히 대우하는 공간으로서의 안방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 따라 소설에서 표현되는 안방의 의미는 시대별로 안방과 사용자를 동일시하는 것으로부터 어른이나 손님을 대우하는 의미까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4. 안방의 용도

안방은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서 가장 많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잠자리, 손님맞이, 가족의 만남, 바느질, 강의, 화장, 학습, 육아, 병조리와 식사까지를 하는 다용도의 사적 생활기능을 만족시키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곳은 외부인에게 잘 공개하지 않는 휴식공간인데 요즘은 외부인의 손님맞이와 가족의 만남에 자주 이용되므로서 전시대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¹¹⁾. 그러나 안방에서 일어나

10)이종우, 체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p.120.

11)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p.551.

는 생활내용은 시대별로 큰 변화가 없으며 개인적 행위 뿐만 아니라 가족적 행위까지 안방에 집중되므로서 여전히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¹²⁾

이들 용도는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인간행동의 연속적 유형인 일상생활과 특별한 날의 행동유형인 비일상 생활로 나누어진다¹³⁾. 안방의 용도를 소설 속의 문장에서 찾아내고 용도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일상적 용도

소설에 나타난 안방(큰방)의 일상적 용도는 취침, 식사, 손님접대, 가족모임, 쟁의와 바느질이었으며, 화장, 학습, 육아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먼저 취침에 관한 내용은 1960년대 이전의 소설에 총 13번 언급되었는데 「이날밤부터 안방의 걱정이 취침한 뒤에는 노밤이가 슬며시 건넌방에 들어와서(임격정 7권, p. 92)」, 「안방에서 자는 줄 알았던 강정태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토지 1부 2권, p.108)」, 「관리라는 관짜만 붙으면 남의 내외지는 안방이라도 부상 출입하는 판인데 치너 팔복 한번 쥐고 뺨한대 붙인 것이 무엇이냐요?(홍, p. 179)」에서는 계층에 관계없이 안주인이나 바깥주인 또는 부부가 함께 취침하는 공간으로서의 안방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방에서 취침하는 사람이 안주인이나 바깥주인 등 집안의 어른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안방에는 귀머쟁이 늙은 할미와 계집아이들만 자는 까닭으로...(임격정 2권, p.95)와 김용석 청년은 잠이나 싹껏 자 보겠노라면서 안방으로 건너갔다(인간사, p.29)에서 보이는 내용이 그것이다.

식사에 관한 내용은 총 12번 언급되었는데 주로 아침과 저녁식사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에 식당 또는 식탁공간이 생기기 이전을 묘사하였거나 생김 후이라도 그것이 없는 주택을 묘사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밥상이 안방으로 들어갔다든가 나왔다는 내용과 안방에 밥상을 차려 놓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안방에서 밥상이 나온 뒤 한참 있다가 휘와 영광이 밖으로 나왔다(토지 5부 14권, p.49)

집안이 좋다는 조건 하나로 데려 온 남옥은 말없이 찬보와 함께 아침준비를 했고 밥상을 안방으로 들고 들어갔다(토지 5부 15권, p.34)」, 「상주께서는 안방에서 잡수실 줄 알고 외상을 차려 냈습니다(임격정 6권, p.312)」 등으로 이 역시 1960년 이전의 소설에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가족 모임에 관한 내용으로는 조선중기의 배경 소설인 임격정」에서 2번 언급되고 있었는데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류계층 보다는 서민계층에서 안방의 가족모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돌이의 집 안방에 집안 식구들이 어느 틈에 마루 끝에 나섰다(임격정 4권, p.259)」에서 이 두집은 모두 서민계층으로 이는 상

류주택보다 채의 분화나 방의 수가 많지 않았던 서민주택에서의 안방은 보다 덜 격식화되어 있었고 따라서 가족모임에도 많이 이용되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안방에서 손님접대에 관한 문장은 총 13번 언급되었고 조사된 안방의 용도 중 유일하게 시대별 특징이 나타난 내용이었다. 우선 1900년 이전의 안방에서의 손님접대는 서민계층이 안방에서 술 접대를 하는 것에 비해 상류계층에서는 비교적 격식화된 대접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술을 가져오랴까, 이왕이면 넉넉한 안방으로 올라갑시다 그려(임격정 4권, p.204)」는 서민계층의 안방을 묘사한 내용이다. 「여편네가 갈비를 구워 가지고 안방에도 또 어떤 귀빈이 있는지 여러 여편네가 들락날락 시중을 하였다(임격정 8권, p.19)」, 「한은이가 두 늙은이를 안방으로 뵈서 들어가다 아랫목 돛자리 위에 앉힌 뒤(임격정 10권, p.43)」는 상류계층의 안방에서의 격식있는 손님접대를 보여주고 있다.

1901-1950년까지는 구한말 일제시대 및 해방을 맞은 시기로 조선시대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일 예로는 상류계층의 안방에 손님접대의 형식으로 술상이 등장하거나 서양의 홍차가 등장한다. 안방에는 서희와 두 여자가 막 들어온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토지 5부 13권, p.332)」, 「세사람은 안방에 마련된 술상 앞에 앉았다(토지 5부 13권, p.458)」가 그것이다.

한편 변화의 일면으로 여주인이 남주인의 손님을 위해 방을 양보하는 미덕이 보이며(인간사, p.119, 토지 3부 7권, p.237참조) 그 후 1980년 이후의 배경 소설에서는 안방이 남편과 손님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예가 있었다. 「밤 아홉시나 되어 늦저녁을 먹은 후 남편은 친구들과 밤새워 마작을 한다며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모든 벽은 문이다, p.179)」가 그것이다.

일상적 용도에서 마지막으로 쟁의와 바느질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 안방에 관한 내용은 총 4번 언급되었는데 「이 날은 일찍 나와서 안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곧 세 사람이 있는 건넌방으로 건너왔다(임격정 6권, p.314)」, 「마을길에서 그를 볼 수 있었으며 안방에 들어박혀 어찌다가 버선볼을 대기도 하고 베를 위에 앉아 보기도 하였다(토지 1부 2권, p.101)」 등이 있다.

4.2. 비일상적 용도

비일상적 용도란 관혼상제와 세시풍속 그리고 통과 의례인 돌이나 회갑 등을 위한 용도를 말한다(박선희, 상계서, p.76). 소설에 나타난 안방(큰방)의 비일상적 용도는 세배, 폐백 등으로 그 숫자가 매우 적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일상적 용도는 아니지만 병이 났을 때, 조리하는 공간으로서의 안방에 관한 예도 있었다.

「환국은 안방에서 한경이 내외에게 세배를 했다(토지 5부 15권, p.354)」,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폐백 드리기를 끝낸 각시가 홍삼에 활옷을 입고 족두리를 얹고 안방 아랫목에 부를 꿇고 앉아...(관촌수필, p.384)」는 세배와 폐백을 위한 용도로서의 안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오가의 집에서는 오가의 마누라가 몸살을

12)이중우, 상계서, p.97.

13)박선희, 상계서, pp.75-97.

않고 있어서 안방에 누워있고(임격정 4권, p.210),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르루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 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장마, p.221)」, 「안방에서는 검은 띠로 머리를 동인 핵구 어머니가 보료 위에 앉았다 누웠다 하고 (허물어진 환상, p.192)」에서는 각각 그 방의 사용 자이지만 병조리 공간용도로서의 안방을 볼 수 있었다. 실제 비일상 적 용도로 안방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상황설정이 소설에 등 장해야 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다양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설 속에 표현된 주거공간 용어 중 안방(큰방)을 추 출하고 이를 묘사하고 있는 앞 뒤의 문장을 독해하여 그 속에 내재 된 안방의 의미를 찾아내는 한편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방의 용도는 소설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인에게 있어 안방은 주택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까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건축이나 실내디자인계에서는 이에 대한 존재가치를 부각시 켜 디자인하여도 좋을 것이다.

② 소설에 나타난 안방의 의미는 상징적 의미와 사용자에 따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상징적 의미는 가장 늦게 까지 불을 켜 놓은 공간, 장식이나 꾸밈, 규모에 있어 특별한 공간, 중요한 물 건의 보관공간,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공간 등의 상징 이 있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앞으로도 대부분 지속될 것이라 사료된다. 사용자에 따른 의미는 안방이 사용자의 대명사가 될 정도 로 강력한 의미를 지니다가 부부의 공간이라는 보다 약화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한편 손님이나 연장자를 예우하는 공간으로서의 의 미도 지니면서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주택에서 가장 큰 방인 안방을 어린이의 공간으로 내어줄 수도 있다¹⁴⁾는 연구의 결과가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소설에 나타난 안방의 용도는 일상적 용도와 비일상적 용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일상적 용도는 취침, 식사, 가족모임, 손님 접대, 갱의와 바느질 등이 있었으며 이 중 손님접대는 안방의 용도 중 유일하게 시대별 특징이 나타난 예였다. 비일상적 용도로는 관혼 상제에서 폐백, 세시풍속에서 세배의 문장이 있었고 병이 났을 때 조리하는 공간의 예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소설에 나타난 안 방의 용도는 상식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용도 외에 별다른 예는 묘사 되고 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론 하에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의 소설을 선정함에 있어 그 길이를 안배하고자 대하, 단편, 중편, 단편소설을 모두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중 대하소 설이 가장 많은 자료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 로 대하소설을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② 본 연구는 안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외의 공간에도 각 공간이 지니는 독특한 의미나 용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강영환(1985),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2. 김선재(1987), 한국 근대도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 위논문.
3. 김홍식(1992), 한국의 민가, 한길사.
4. 문홍길(1982), 개화기 이후 한국 전래 주거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박선희(1991),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 연구, 연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 서귀숙 외 4인(1998),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관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5권1.
7. 서귀숙(1996), 「言語による 建築的 空間の 表現に 關する 基礎的 考 察」, 京都工芸繊維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8. 서귀숙(1992), 「日本と韓國の小説に現われる住居における境界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近畿支部研究報告集, 第32」.
9. 신화경 외 4인(1998), 한국 주거공간 용어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주 거학회지 9권2호.
10. 오혜경(1992), 아동실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 권1호.
11. 유영희(1994), 도시한옥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임창복(1989), 한국 도시 단독 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조용훈(1984), 한국 도시주택의 변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4. 주남철(1970), 이조말부터 1945년도 까지의 한국의 주택 변천, 대한건축 학회지 14권 38호.
15. 주남철(1992),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6. 홍형욱(1986),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7. 홍형욱(1992), 한국 주거사, 민음사.

<접수 : 1999. 2. 1>

14) 오혜경, 아동실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권1호, p.189.